

“탈꼴찌 넘어 스텝업”...페퍼스, 매 경기가 구단 새역사



시즌 막판 뒷심 발휘... '탈꼴찌' 확정
조이 최다 40득점·공격 200점 달성



페퍼저축은행 시 페퍼스가 지난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 레드스파르스와의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페퍼스는 이날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하며 시즌 13승째를 기록, 구단 창단 이후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KOV 제공)

“스텝업”을 목표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
 “탈꼴찌”를 확정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장 소연 감독이 매 경기 구단 새 역사에 도전한다.
 페퍼스는 지난 1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2025-2026시즌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5-17 25-19 21-25 22-25 15-5) 승리하며 시즌 13승째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지난 15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12승에 성공, 구단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다.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 홈에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2021-2022시즌 창단 이후 출근 최하위에 머물렀던 페퍼스는 시즌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7위 정관장을 누르고 ‘탈꼴찌’를 확정했다.
 페퍼스는 1세트부터 조이와 하혜진, 박은서의 특점이 어우러지며 흐름을 잡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1·2세트를 연달아 가져왔다.
 특히 두 세트 동안 범실을 단 3개로 묶으며 집중력을 보였다.
 그러나 3세트 들어 범실이 늘고 리시브가 흔들리며 흐름을 내렸고, 4세트에서도 접전 끝에 내주며 승부는 5세트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세트에서 페퍼스는 다시 집중력을 되찾았다.
 시마무라의 속공을 시작으로 조이와 박은서의 특점이 터지며 격차를 벌였고, 조이의 백어택으로 15-5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조이는 이날 40점을 기록하며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과 후위 공격 200득점을 동시에 달성했다.
 경기 후 장소연 감독은 “시즌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탈꼴찌가 목표는 아니었다. 우리는 ‘스텝업

을 목표로 삼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집중해 왔다”며 “창단 이래 최다승을 기록하고 탈꼴찌를 확정 지은 것은 굉장히 기쁘다. 선수들과 스태프가 함께 이뤄낸 뜻깊은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장 감독은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성과를 동시에 짚었다.
 그는 “(2-0상황인) 3세트 전 선수들에게 상대 서브가 강하게 들어올 것을 대비해 어려운 공은 무리하지 말고 연결과 커버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며 “초반에는 흔들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강한 의지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단 멤버인 박은서와 하혜진도 의미있는 기록을 작성했다.
 자신의 백넘버와 같은 13승을 올린 박은서는 “처음으로 승수와 백넘버가 같아서 승리 사진에서도 제가 가운데 있었다(웃음). 경기 중 위기가 있었지만 선수들이 잘 극복해 더 의미 있는 승리였던 것 같다”며 “창단 이후 이런 기록을 세우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팀이랑 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항상 시즌 후반에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시즌에는 보강 운동과 치료에 더 신경 쓰고 있다”며 “영상 분석을 통해 자세와 경기 운영을 보완하고, 실수가 나왔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8점을 보낸 하혜진 역시 “팀이 바닥부터 여

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계속 좋은 기록을 쌓아가며 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돌아봤다.
 특히 동료들과의 호흡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혜진은 “시마무라와 훈련 과정에서 서로의 플레이를 보며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블로킹이나 상

황 판단 등 다양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시즌 목표도 분명히 했다.
 박은서는 “모든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싶고, 특히 홈경기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하혜진은 “봄 배구를 목표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남은 경기 모두 이기고 싶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25일 오후 7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시즌 마지막라운드인 6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손흥민 vs 메시...MLS 개막전 첫 '손메 대전'

22일 LAFC·마이애미 경기

손흥민(LAFC)과 리오넬 메시(마이애미)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새 시즌 개막전에서 격돌한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2026시즌 MLS 개막전을 치른다.
 이번 개막전은 손흥민과 메시라는 세계 최고 스타들이 격돌하는 무대다.
 FC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럽 무대를 호령하고 국가대표팀에선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품어 '축구의 신' 칭호를 얻은 메시는 미국 무대에 건너간 뒤에도 2년 연속 최우수 선수(MVP)로 뽑히고 지난 시즌 팀을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MLS 내 위상을 놓고 보면 손흥민도 메시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8월 MLS 역대 최고 이적료(2650만 달러·약 384억원)에 미국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반시즌 동안 정규리그에서만 10경기 9골 3도움을 몰아치며 리그를 평정했다.
 MLS 사무국이 이 둘의 맞대결로 시즌 개막전 콘셉트를 잡은 이유다.
 이들이 대결하는, 이른바 '메손대전'이 MLS 무

대에서 대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흥민의 경기력은 '최상'이다.
 LAFC의 올해 첫 공식전인 지난 18일 북중미 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전반전에만 1골 3도움을 몰아치는 '원맨쇼'를 펼쳐 팀의 6-1 승리에 앞장섰다.
 여기에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 드니 부앙가는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여전한 결정력을 과시했다.
 메시는 이날 초 마이애미의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입어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18일 치러진 마이애미 훈련장에서 메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개막전에 예정대로 출전하리라는 예상이 힘을 얻는다.
 /연합뉴스

V리그 MVP 레이스 점화...1위 팀이 웃을까

남자부 현대캐피탈 레오·허수봉 유리...김연경 빠진 여자부 무주공산

프로배구 2025-2026시즌 V리그가 5라운드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정규리그를 빛낸 최고의 선수 영예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규리그 MVP는 취재 기자단 투표로 선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페넌트레이스 1위 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정규리그 1위 공헌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자부에선 선두 경쟁 중인 현대캐피탈의 대한항공의 주포들이 유리하다.
 두 팀은 나란히 시즌 19승10패를 기록 중이지만, 현대캐피탈이 승점 59로 대한항공(승점 57)에 근소하게 앞서 있다.
 현대캐피탈의 '쌍포'인 레오와 허수봉이 정규리그 MVP에 더 근접한 셈이다.
 OK저축은행 소속이던 2023-2024시즌 이후 2년 만에 정규리그 MVP에 도전하는 레오는 29경기에서 총 630점(경기당 평균 21.7점)을 수확해 득점 부문 4위다.
 레오는 공격 종합 1위(성공률 54.8%)와 후위 공격 2위(성공률 60.6%) 등 공격 거의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허수봉도 2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노린다.
 허수봉은 득점 부문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8위(총 430점)에 랭크돼 있고, 오픈공격 1위(성공률 44.8%)와 공격 종합 3위(성공률 53.1%)로 순도 높은 공격을 펼쳤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주포 러셀과 베테랑 세터 한 선수, 토종 간판 공격수 정지석도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다면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러셀은 득점 5위에 올라 있고, 공격 종합 4위(성

공률 51.7%)와 함께 서브 부문에선 1위(세트당 0.606개)를 달리는 중이다.
 한선수는 41세의 나이에도 29경기 전 경기에 나서 정교한 볼 배급으로 대한항공의 시즌 초반 10연승 행진을 이끌었다.
 정지석은 발목 부상 여파로 7경기에 결장했음에도 복귀 후 대한항공의 공격 한 축을 책임지며 맹활약 중이다.
 여자부에선 지난 시즌까지 3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은퇴하면서 누가 최고 선수의 영예를 누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56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상 승점 53)이 바짝 뒤쫓는 형국에서 1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1위 챔피언전에 직행한다면 외국인 주포 모마와 토종 간판 공격수 강소휘가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모마는 득점 부문 2위(총 794점)와 공격 종합 3위(성공률 44.7%)에 올라 있고, 강소휘는 26경기에서 총 354점(경기당 평균 13.6점)을 사냥하며 모마, 타나차와 막강 삼각편대의 한 축을 형성했다.
 현대건설에선 득점 부문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공동 10위(총 361점)에 랭크된 베테랑 미들블로커 양희진과 주전 세터 김다인이 후보감으로 거론된다.
 3년 연속 득점왕을 예약한 '쿠바 특급' 실바도 모마와 함께 10년 만의 외국인 정규리그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전통과 형상회 : 헤존
: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

일시 : 2026-02-27(금) ~ 2026-03-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
일시 : 2026-03-2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헤존
: 받아 간직하여 주십시오
2026. 2. 27. ~ 3. 29.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